

대학 운동부 선수들 다수 “폭력 행태 경험”

30% 이상이 선배 등에 의해 폭력·일상행위 통제 경험 선후배간 심부름 강요 휴대전화·데이트 제한 등 겪어 외출·외박·두발 등 통제도

대학 운동부에서 활동하는 선수들 다수가 선수들 간 위계적인 문화에서 비롯된 심부름 강요, 외출·외박 제한 등 폭력적 행태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실시한 ‘학교 운동부 폭력 문화·관습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학 운동부 내 위계적인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적 통제 관행을 규제·예방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 관련 대학 및 한국대학스

포츠협의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인권위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전문운동선수 100명 이상, 운동부 10개 이상의 대규모 운동부를 운영하는 9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인권위는 “대학 운동부 내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개별 진정을 다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행위들이 단순히 행위자의 개인적 일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운동부의 엄격한 위계 문화와 관습에서 비롯된 것임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권침해 행위가 진정사건이 제기된 학교 뿐 아니라 유사한 규모의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를 시행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조사 결과 운동부 안에서 ‘폭력적 통제’가 행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 선수들 대부분은 언어·신체·성폭력뿐만 아니라 일상행위의 통제도 폭력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30% 이

상의 선수들이 선배와 지도자에 의해 수시로 폭력 및 일상행위의 통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인권위는 심부름 강요, 휴대전화·데이트 제한 등을 구체적인 예시로 나열하며 “이번 일상행위의 통제는 운동부의 위계적 문화를 배경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이어 “이는 평범한 통제제가 아니라 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해 폭력적 수단과 관습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대학 선수 중 38%는 외박·외출 제한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37.2%는 두발 길이, 복장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인권위는 “폭력적 통제는 선배 선수에 의해 생활공간인 숙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위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들은 폭력적 통제를 행하면서 폭력 자체에 둔감해지며, 이는 실제로 심각한 폭력 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폭력적 통제가 행해진 결과 운동선

수들의 실적인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도 했다. 설문조사 결과 대학 선수 46.1%는 폭력적 통제가 운동부 운영·운동능력 향상·운동 수행·승리 등과 관계없다고 응답했으며, 폭력적 통제를 경험한 62.4%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 안 됨’, 35.7%가 ‘운동을 그만 두고 싶어짐’이라 응답했다. 인권위는 폭력적 통제의 원인으로 “관계기관이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조사 및 처벌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현존하는 대학 내 구제체계(인권센터 등)의 인력과 예산 등 자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한체육회, 운동부를 운영하는 주요 대학 및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위계적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폭력이 전제된 각종 괴롭힘, 인권침해 등 폭력적 통제의 규제 및 예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체육 발전 노력해달라” 정강선 전복체육회장,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 감사패

전복체육회 정강선 회장이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회장 윤만영)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6일 윤만영 회장 등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 임원들이 도 체육회관을 방문, 정강선 회장과 의견을 나누는 뒤 정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윤만영 회장은 “전 세계 한인체육인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며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정강선 회장은 “전북체육회와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북체육회와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 재필리핀대한체육회, 재사이판대한체육회 등 4개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체결,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시청 수영부 김천 전국대회 준우승

금4·은1·동1개 획득

김홍량 감독이 이끄는 전주시청 수영부가 김천에서 열린 전국수영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하는 호성적을 거뒀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수영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4일간 열린 제11회 김천 전국수영대회에서 금메달 4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해 강원도청에 이어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다. 전국 33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국가대표인 문승우 선수가 남자 일반 접영 100m와 200m, 단체 계영 4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3관왕을 기록했다. 또 김민석 선수도 남자 일반 개인혼영 200m와 단체 계영 400m에서 금메달을 따 2관왕에 올랐다. 두 선수는 모두 대회 신기록을 세우는 기업을 토했다. 특히 팀 내 4명의 선수가 함께 한 단체전 계영에서 400m 금메달과 800m 동메달을 거머쥐며, 진정한 원팀의 면모를 보여줬다. 김홍량 감독은 “항상 선수들이 편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은 전주시에 감사드린다”며 “오는 5월에 개최되는 2021 하계 유니버시아드선발전과 7월 도쿄올림픽 선발전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재정 전주시 체육산업과장은 “전주시 수영부가 유망없이 기량을 발휘해 전주시 위상을 높여줘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직장운동경기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진안군청 역도선수단, 홍삼 먹고 힘 ‘불끈’

전국춘계남녀경기에서 최지호, 금2·은1 최행남, 은3개 ‘쾌거’

진안군청 역도선수단이 지난 3월 31일부터 강원도 양구군에서 8일간 열린 ‘제69회 전국춘계남녀역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를 획득하며 진안홍삼의 강한 힘을 보여줬다. 특히 올해 신규로 입단한 최지호 선수(20)가 73kg급에 출전해 인상(131kg) 2위, 용상(165kg) 1위, 합계(296kg) 1위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목에 거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최행남 선수(21)는 81kg급에 출전해 인상(136kg) 2위, 용상(168kg) 2위, 합계(304kg) 2위로 은메달 세 개를 따냈다. 최지호 선수는 고등부 시절 여러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어 계약 당시 유망주 선수들이 유망주로 기대를 한 품에 모였으며 최행남 선수도 매년 향상된 기량을 선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선수다. 한편 이번엔 좋은 성적을 거둔 역도선수단은 작년 12월부터 진안군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으로부터 면역력 및 체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진안홍삼 제품을 지원받고 있다. 최병찬 감독은 “최고의 건강식품을 지원해주는 진안군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진안군청 최지호 선수가 지난 3월 31일부터 강원도 양구군에서 8일간 열린 ‘제69회 전국춘계남녀역도경기대회’ 73kg급에 출전해 인상(131kg) 2위, 용상(165kg) 1위, 합계(296kg) 1위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목에 거는 쾌거를 이뤘다. (사진=진안군청 제공)

북한 “도쿄올림픽 불참할 것”... 코로나19로 인한 선수 보호 차원

북한이 코로나19 사태에 선수들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7월23일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6일 발표했다. 북한 선수단의 불참으로 남북 공동입장과 남북 단일팀 구성도 어려워졌다. 남북은 지난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한 바 있다. 앞서 2019년 3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집

행위원회를 열고 도쿄올림픽 개최식 남북 공동입장과 여자농구와 여자하키, 유도(혼성단체전), 조정 등 4개 종목에서 단일팀 구성을 승인했다. 여자농구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때 단일팀으로 은메달을 딴 적이 있다.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돌아선 뒤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단일팀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북한의 불참 선언으로 3년 만의 남북 단일팀 구성은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뉴시스

전북 일류체코, K리그1 7R MVP



한국프로축구연맹은 6일 일류체코를 7라운드 MVP로 뽑았다고 밝혔다. 일류체코는 지난 3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과의 원정 경기에서 1골 1도움으로 전북의 3-1 완승을 이끌었다. 그는 1-0으로 앞선 후반 28분 이용의 크로스를 헤더로 마무리하며 추가골을 넣었고, 후반 35분에는 정확한 패스로 바로우의 쇄기골을 도왔다. 이날 1골 1도움을 올린 일류체코는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총 5골로 득점 선두를 달렸다. 일류체코의 활약에 전북은 개막 7경기 무패(5승2무)로 1위(승점 17)를 유지했다. /뉴시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